

# 美 불교계, 빈곤·기아와 전쟁 위해 '한 걸음'

### BGR, 10월 24일 'Walk to Feed the Hungry' 개최

미국 캘리포니아 불자들이 기아와 빈곤과 싸우기 위해 길을 행진을 시작했다.

'KQED'는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지재단 Buddhist Global Relief(이하 BGR)가 10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San Jose), 밀퍼드(Milford) 일대에서 '기아를 살리기 위한 행보(Walk to Feed the Hungry)'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BGR의 'Walk to Feed the Hungry'는 매년 미국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주를 순회하며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Walk to Feed the Hungry'는 카루나사(Karuna Buddhist Vihara)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3일 밀퍼드, 11일 새너제이에서 각각 개최됐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아야 산투씨카(Ayya Santussika) 비구니 스님의 진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대회에 앞서 밀퍼드와 새너제이 'Walk to Feed the Hungry'에서는 13,000여 달러(약 1천5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는 캘리포니아의 복지 프로그램인 'Project Homeless Connect'에 지원됐다. 이 사업은 도시 빈곤자와 노숙자를 대상으로 급식·건강·미용 서비스를 제공하

고, 기업체에 취직을 알선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비심이 있어야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아야 산투씨카 스님은 "매년 열리는 행사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대회는 특별한 점이 있다"며 "지난 2012년 이 대회를 처음 주창해 마련한 보디

### 3일 밀퍼드, 11일 새너제이 이어 보디(Bodhi) 스님 증명법사로 참여

### 캘리포니아 노숙자·빈곤층에 지원 "BGR, 지속가능한 복지 추구해"

(Bodhi)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백안의 보디 스님은 미국에서 '불교 대중화'를 이끈 견인차로서 추앙받는 인물이다. 1973년 스리랑카에서 수계를 받은 이래 2002년까지 불교 소식지 불교공공사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의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며 '문서 포교'에 앞장섰던 보디 스님은 이후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와 불교 실천가로 지금까지 '복지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Walk to Feed the Hungry'의 시작은



캘리포니아 복지재단 Buddhist Global Relief가 10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밀퍼드 일대에서 '기아를 살리기 위한 행보(Walk to Feed the Hungry)'를 개최한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디 스님은 미국불교의 성장에 크게 감동하면서도, 실망감도 적지 않았다. 미국 불자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이 개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주목한 것이다.

이에 보디 스님은 불교잡지 'Buddhadharma'에 '불자들의 도전(A Challenge to Buddhists, 2007.9.1.)'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바의 고통에 맞서 더 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독자에게'라는 부제의 글에서 스님은 "중시대 불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 약자를 향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설은 미국 불교계에 반향을 일으켰고,

2년 후 복지재단 BGR을 결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201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Walk to Feed the Hungry'가 개최된 원동력이 되었다.

BGR의 모토는 '기아는 최악의 질병'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BGR 사업은 빈곤과 기아와 싸움으로, 후원과 소비라는 의존적 순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난 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충제를 제공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모유 수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 中 말하고 감지하는 '로보스님' 등장

### 롱쿠안사, IT기술 도입한 스님 로봇 개발

중국 불교계가 IT 기술을 접목한 포교에 집중하며 젊은 불자들의 불심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롱쿠안사(Longquan)는 양중맞은 스님 캐릭터에 IT 기술을 접목한 '로보스님(Robo Monk·사진)'을 선보이는가하면, 광동성의 동화선사(Donghua Zen)는 온라인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중국 네티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로보스님'은 롱쿠안사에서 파내고 있는 만화 시리즈 '문제, 자신을 위해 찾아라(Trouble, You Seek for Yourself)'의 주인공 캐릭터 씨안얼(Xian'er)에 I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로봇이다.

높이 50cm 크기에 노란색 가사를 두른 로보스님은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문답(Q&A)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능력을 보유했다. 이는 IT 기술에 친숙한 중국 젊은 불자들의 불심을 다잡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웨이보(Weibo)에 로보스님의 계정을 만들고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롱쿠안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시공을 초월한 포교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베이징 롱쿠안사(Longquan)가 스님 캐릭터에 IT 기술을 접목한 '로보스님(Robo Monk·사진)'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1500년 역사의 고찰인 광동성의 동화선(Donghua Zen)사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전문가를 영입하고 온라인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신화(Xinhua)통신에 따르면 최근 동화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이 급증할 정도로 온라인 홍보에 큰 성과를 올렸다.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 전통에 미디어 기법과 IT 기술을 접목하고 홍보에 나서는 예가 늘고 있다"며 "이런 홍보 기법은 앞으로 중국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日 랩으로 범문하는 '힙합 스님' 화제

### 연태사 고묘 스님, 불교와 힙합 접목시켜 큰 인기



일본 연태사(蓮台寺, Rendaiji Temple)의 고묘(Gomyo) 스님은 랩으로 범문하는 등 힙합과 불교를 접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한 도량에 랩이 울려 퍼진다. 고묘(Gomyo) 스님이 랩으로 범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 뒤로는 열심히 종이에 색을 칠하는 낙서 예술가(graffiti artist) 에이타이(Eitai)가 보인다. 생소한 사찰 풍경이다.

'The Japan Times'는 10월 11일 랩으로 범문하는 고묘(Gomyo·45) 스님을 소개했다. 'The Japan Times'는 "일본의 가장 비밀스럽고도 근엄한 종파 중 하나인 진연종(Shingon) 연태사(蓮台寺, Rendaiji Temple) 경내에 혁명 아닌 혁명

이 일어났다"며 "한 비구가 불교와 힙합을 결합했다"고 보도했다.

고묘 스님은 "불교는 염불을 일 때 목탁, 죽비 등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요소는 힙합과 좋은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다. 랩퍼들이 비트에 맞춰 랩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불교와 랩을 결합시키는 고묘 스님의 시도는 이 뿐만 아니다. 고묘 스님의 절친한 친구(Eitai)는 힙합 문화 중 하나인 그래피티 아트(낙서 예술, graffiti art)로 불교적 벽화를 그려낸다. 고묘 스님은 "불교, 특히 진연종에서는 시각적 가르침을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생각한다"며 "불교의 미술 요소인 만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불교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1990년부터 힙합 음악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 후 1994년 고향 미시간(Michigan)을 떠나 일본으로 오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지금도 진연종서 '아사리(阿?梨, 지역이 높아 스승이 될 만한 승려)로 인정받을 만큼 일본 불교계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묘 스님은 "90년대에 비스티 보이즈의 'Bodhisattva Vow'라는 노래를 듣고 힙합으로 불교를 표현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랩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댄스도 본 오도리(Bon Odori,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율무)춤 등 불교 무용과 매우 어울리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러 "힙합과 불교의 만남은 양 자에게 모두 좋은 일"이라며 "불교는 새로운 방법으로 포교할 수 있고, 힙합은 현대사회 및 물질문명을 비판하는 디스 장르에서 벗어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는 스님의 뜻에 따라 연태사 주지 사에키 스님(Zoko Saeki·72)도 적극 원조하고 있다. 연태사 경내에는 고묘 스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 승려들에게 새로운 포교법을 전수하고 있다. 'The Japan Times'는 "현재 7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이곳에서 교육 중이며, 내년에는 4명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 전했다.

박익률 기자

# 티벳 승려들, 미국 가톨릭대서 '만다라' 공연

### 고양사 출신 스님들, 미국 드폴대학서... 위험 처한 티벳불교 알리고자

일군의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의 가톨릭 요람에서 만다라를 그리며 종교간 평화를 기원했다. 'DePaulia'는 10월 11일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마가톨릭 대학인 드폴(DePaul)대학 링컨 파크 캠퍼스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만다라를 그리며 종교간 이해를 도모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상황을 알리고 사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투어 일환으로 드폴대학을 방문한 스님들은 남인도 지역 고망(Gomang)사 출신으로 향후 1년간 미국을 순회하며 푸자, 만다라 등을 시전하고 불교 공예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스님들은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아이콘"이라는 데이비드 웰만(David Wellman·종교학) 교수는 "중국의 강점 시절인 1940년대 이후 많은 티베트 스님들이 인도로 탈출했지만, 종교적 자유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스님들이 로마 가톨릭의 메카에서 공연하는 자체만으로도 티베트 상황에 대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다라 제작은 인쇄를 요구하고 집착을 버리게 하는 명상과도 같다. 작고 좁은 관을 이용해 색색의 모래알을 뿌리며 일주일 남짓 완성된 만다라는 성 빈센트 드폴 교구의 '반사의 연못'에 뿌려졌다.



남인도 지역 고망(Gomang)사 출신 티베트 승려들이 미국 드폴(DePaul)대학 링컨파크 캠퍼스에서 만다라를 그리고 있다.

티베트 스님들의 드폴대학 공연은 '종교 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Religion Culture and Community, 이하 CRCC)의 초청으로 가능했다. 토마스 오브리엔(Thomas O'Brien) CRCC 감독관은 "로마가톨릭 전통의 드폴대학 재학생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학이나 인류학을 배우는 것과 같이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중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DePaulia'는 "티베트 스님들의 공연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일깨웠다"는 신입생 마이클 라스무센(Michael Rasmussen)의 말을 인용하고, "이번 공연은 재학생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 불교를 접목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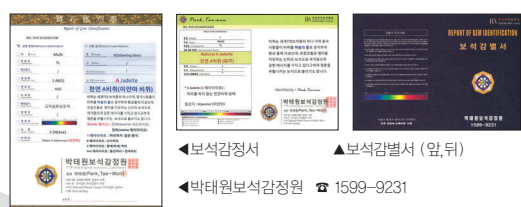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 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8cm]

볼고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반

성명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유명자 기반

기반  
완성 전과정  
안녕, 편안한  
나만의  
만남입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www.hyunbulshop.com